AI PESONAL FINANCIAL ROBOADVISOR

주간투자전략 (3/16~3/20)

"안도 랠리는 끝났다 … 주말 사이 뒤바뀐 증시 운명, 내 주식 탈출해야 할까?"

- 공격보다 생존, 기술보다 자원 … 현금비중을 크게 늘리는 전략
- 지정학적 리스크의 격상(Escalation)과 증시 2 차 충격
- '기술'에서 '자원과 안보'로의 회귀 … 방산, 에너지, 가치주, 금융주 관심

공격에서 생존으로 선회
현금비중을 크게 늘리는 전략

공격보다 생존, 기술보다 자원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안도 랠리가 아닌 '고유가 고착화'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적 스탠스를 '공격'에서 '생존'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기존의 반도체 및 성장주 중심 비중 확대 전략을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에너지, 방산 등 '자원과 안보'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금 확보와 리스크 관리

지정학적 리스크의 격상(Escalation)과 증시 2 차 충격

미군의 이란 하르그섬 공습은 경제 생명줄을 타격한 실체적 공격으로, 에너지 전쟁의 전면화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며 국내 증시 지지선 무력화와 외국인 이탈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투자자는 낙관론을 버리고 방산, 에너지 등 방어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합니다. 또한 금주는 FOMC 등 변수가 겹친 만큼 현금 확보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십시오.

이란의 '비대칭 보복' 시나리오
NVIDIA 모멘텀 희석에 유의

하르그섬 공습이 바꾼 매크로 환경

금주 5 개 핵심 이슈는 1) 이란의 '비대칭 보복' 시나리오로 현실화될 경우, 브렌트 유가는 단숨에 120 달러 돌파를 시도할 전망이며, 2)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드라이브와 오일 쇼크, 3) 유가 급등으로 인한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으로 3 월 FOMC 회의에서 '매파적' 메시지 경계, 4) 국내 수출 기업의 펀더멘털 훼손, 5) 그리고 NVIDIA GTC(3/6~3/19) 2026 모멘텀 희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방산, 에너지 및
가치주, 금융주 관심

섹터별 투자 전략: '기술'에서 '자원과 안보'로의 회귀

IT/반도체: 전략적 후퇴와 기회 포착 _ 유가 안정 확인 후 진입하는 '주 후반 선별 매수' 관점을 유지

방산/에너지: 위기속의 주도주 _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확실한 헤지 수단

가치주/금융: 배당과 지배구조의 방어막 _ 변동성 국면에서 하방 경직성 확보

현금 확보와 포트폴리오 헤징

결론적으로 **금주는 "지수는 맞추는 게임이 아닌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시장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안개가 걷히고 실물 경제의 파장이 명확해질 때까지, 자원을 선점하고 자산을 지키는 '생존 전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공격보다 생존, 기술보다 자원]

3/14 일 미군 이란 하르그섬 공습

지난주 우리는 '유가 90 달러 돌파'가 코스피에 미치는 단기 변동성을 경계하며 '방어 후 선별 매수'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 월 14 일 발생한 미군의 이란 하르그섬 공습은 기존의 모든 낙관론을 백지화시키는 '메가톤급 변수'입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핵심 요충지가 타격 받음으로써 이제 시장은 단순한 심리적 위축을 넘어 '실질적인 에너지 공급망 붕괴'라는 중대한 하방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투자전략도 공격→ 생존으로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안도 랠리가 아닌 '고유가 고착화'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전략 스탠스도 '공격'에서 '생존'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기존의 반도체 및 성장주 중심 비중 확대 전략을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에너지, 방산 등 '자원과 안보'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격상(Escalation)과 증시 2 차 충격]

국지적 충격이 아닌 에너지 전쟁 전면화

과거의 중동 리스크가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 하르그섬 공습은 상대방의 경제적 생명줄을 실제로 끊어버린 '실체적 공격'입니다.

이는 이란의 보복 의지를 극대화하며, 주변국 석유 시설로 확전될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시장은 이를 '국지적 충격'이 아닌 '에너지 전쟁의 전면화'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 접근 필요

지난주 서킷브레이커를 거치며 확인했던 코스피 5,300 선은 이제 안전한 지지선이 아닙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과 환율 변동성 확대는 외국인 자금의 추가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지수의 'W 자형 리테스트' 혹은 그 이하의 변동성을 염두에 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요 이슈 5 가지 … 하르그섬 공습이 바꾼 매크로 환경]

이란의 '비대칭 보복' 시나리오

이란은 즉각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미국의 동맹국 석유 시설에 대한 보복 타격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실제 타격이 발생할 경우 브렌트유는 단숨에 **120 달러를 돌파**할 것이며, 이는 글로벌 증시에 추가 충격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드라이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함 파견과 하르그섬 타격이라는 트럼프의 강경책은 단기적으로 공급 불확실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제 3 차 오일쇼크에 준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완전히 분쇄하고 있습니다.

3 월 FOMC 회의 '매파적' 메시지 경계

오는 17~18 일 예정된 FOMC 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은 더욱 매파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은 연준의 금리 동결 기간 연장 혹은 추가 인상 논의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악재입니다.

국내 수출 기업의 펀더멘털 훼손

원유 수입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경제의 특성상 고유가는 곧 비용 상승입니다. 정유 업종의 재고 이익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 및 운송 업종(화학, 항공 등)은 실적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증시의 전반적인 이익 체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GTC 2026 모멘텀 희석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플랫폼 '베라 루빈' 공개 등 반도체 업황의 강력한 호재조차 매크로 불안에 묻힐 위험이 있습니다. 지수 하락 시 반도체 대형주에서 발생하는 '지수 방어용 매도' 물량에 유의해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의 재 점화]

현재 매크로 환경의 가장 큰 위협은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입니다. 유가 상승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가속화합니다.

이번 주 FOMC 는 단순한 금리 동결 여부를 넘어, 전쟁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연준의 정교한 가이던스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만약 파월 의장이 "물가 안정을 위해 성장을 희생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비친다면, 시장은 본격적인 하락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금주 투자 유망 섹터 ... 기술에서 자원과 안보로의 회귀]

IT/반도체 → 전략적 후퇴와 기회 포착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는 펀더멘털 자체는 견고하나 매크로 변수에 가장 취약한 '수급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공격적 추격 매수보다는 유가 안정 확인 후 진입하는 '주 후반 선별 매수'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방산/에너지 → 위기 속의 주도주

전면전 확전 가능성은 방산 섹터에 강력한 수주 모멘텀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가 급등의 직접적 수혜를 입는 정유 및 에너지 자원 관련주는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헤지 수단이 될 것입니다.

가치주/금융 → 배당,지배구조 방어막

주총 시즌과 맞물려 배당 매력이 높은 금융주 및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주사들은 시장 변동성 국면에서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요 관심 종목 및 포인트]

코드	종목명	업종	시총 (십억원)	주가(원)	주간상승률
0124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사,자본재	76,726.3	1,488,000	+0.47
079550	LIG넥스원	상사,자본재	15,906.0	723,000	-13.31
010950	S-Oil	에너지	12,158.9	108,000	-16.73
047050	포스코인터내셔널	상사,자본재	12,965.5	73,700	+0.55
042660	한화오션	조선	41,948.0	136,900	+8.05
011200	HMM	운송	19,855.2	21,050	-0.47
105560	KB금융	은행	55,517.4	148,900	+1.02
055550	신한지주	은행	43,098.6	90,800	-1.09
006800	미래에셋증권	증권	39,412.5	69,500	+3.58
226590	엠디바이스	반도체	278.5	26,200	-4.20

자료: 독립리서치 핀릿

관심 종목

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 글로벌 긴장 고조에 따른 지상 방산 수주 파이프라인 급증 및 유럽 내 점유율 확대. 위기 국면의 최대 수혜주

2) LIG 넥스원 (079550):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에 따른 방공체계(천궁-II) 수요 급증. 미국 패트리어트 대비 우수한 가성비와 납기 경쟁력으로 글로벌 수주 가속화 기대

3) S-Oil (010950): 유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재고 평가 이익 및 정제마진 개선. 고유가 장세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 후보

4)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 천연가스 및 식량 공급망 장악.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우호적인 비즈니스 모델

5) 한화오션 (042660): 에너지 안보 강화에 따른 LNG 선 수요 증가 및 해상 물류 병목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

6) HMM (011200):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글로벌 물류 병목 현상에 따른 운임 상승 수혜. 친환경 선박 도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1조 원대 영업이익 기반의 견조한 실적 체력.

7) KB 금융 (105560):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과 배당 매력으로 지수 하락 압력을 방어할 최우선 방어주

8) 신한지주 (055550): 2026 년 주주환원율 50% 시대 진입 기대 및 비과세 감액 배당 확대 가능성. 금리 변동성 국면에서 은행 중심의 견조한 이익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하방 경직성 확보

9) 미래에셋증권 (006800):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 대행 등 리테일 채권 시장 지배력 강화. 국내외 주식 거래대금의 견조한 유지와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 확대 기조 유지 방침 긍정적

10) 엠디바이스 (226590): HBM 만 보다가 놓친 종목, 진짜는 SSD 다 ... 글로벌 가장 싸 보이는 SSD 종목!!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의 작성자 금융투자분석사 김영진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